

기술분석보고서 기계·장비

에이팩스인텍(20749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작성자 성재욱 선임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IRTV)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525-7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스인텍(207490)

친환경 LED 조명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기업정보(2024.04.17 기준)

대표자	김권진
설립일자	1997년 11월 03일
상장일자	2018년 11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LED 조명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시세정보(2024.04.17 기준)

현재가(원)	6,8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46
발행주식수	3,600,000
52주 최고가(원)	10,440
52주 최저가(원)	3,705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김권진	91.72
김명숙 외 2인	1.41

■ LED 조명/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이펙스인텍(이하 ‘동사’)은 1997년 11월 설립되었으며, 2018년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LED 조명등과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LED 등기구, 경관 조명 등이며, 내구성이 높으면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조달 매출이 6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수(직접 영업) 부분이 30.2%, 아파트(직접 입찰) 부분이 1.4%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 탄소 융합 소재 PCB를 활용한 LED 조명

동사는 LED 조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PCB 열 방출 문제를 탄소 나노 융합 소재 적용을 통해 개선하여, 광 효율이 향상되고 수명이 길어진 LED 조명을 개발하였다. 동사의 탄소 융합 소재를 이용한 LED 등기구는 NEP 인증,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인증, 녹색기술 인증, 첨단기술제품 인증 등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동사는 지속적인 R&D를 통한 각종 제품 인증 및 특허권 취득에 투자를 지속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 IoT 기반 누전감시를 위한 원격접속장치 점유율 확대

동사는 IoT 기술을 융합한 네트워크 무선 통신망을 통해 누전, 과부하, 단락사고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달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완료하였다. 동사의 IoT 제품은 기존의 상시 대면 점검 체계에서 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실시간 전기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가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부주도형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 국민 참여형 전기안전플랫폼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동사는 미래 전략 사업인 IoT 사업의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1	211	2.3	1.8	0.8	1.1	0.5	1.7	0.6	205.9	32	1,924	251.1	4.2
2022	212	0.4	0.6	0.3	0.8	0.4	1.1	0.4	219.4	22	1,916	310.4	3.6
2023	255	20.0	1.4	0.6	1.0	0.4	1.5	0.5	224.1	28	1,914	250.2	3.7

기업경쟁력

다양한 인증을 통한 LED 조명 기술경쟁력 확보

-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터널등기구, 투광등기구, 실내조명등, 다운라이트, 램프,景觀조명기구, 태양광가로등 등 실내외 LED 조명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
- LED 조명 중 NEP 인증 191품목, 혁신제품 8품목, 녹색기술 인증 267품목, 우수조달제품 261품목 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기술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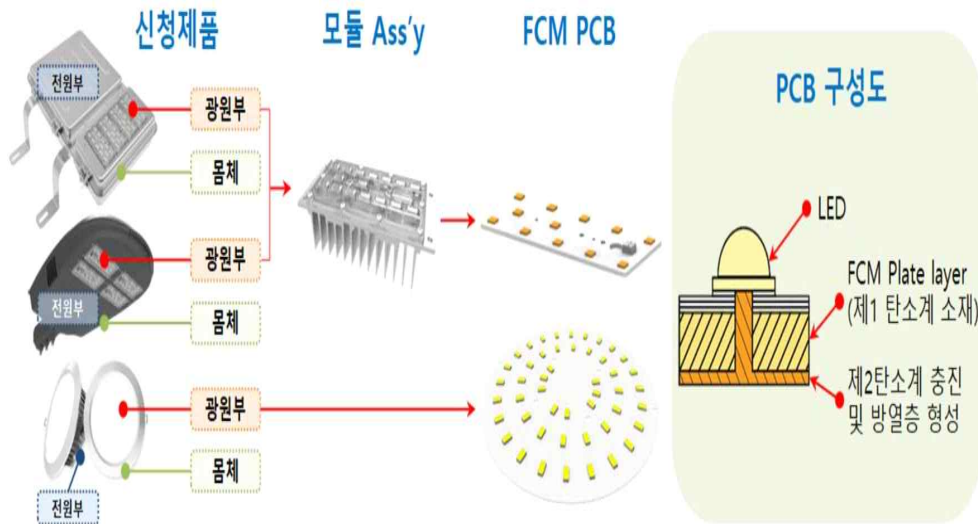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 그린뉴딜 정부 정책에 따른 LED 조명, 태양광시스템 설비 진행 계획 수립하여 B2G 시장 공략 중
-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와 ESCO(에너지절약 사업)를 지속적 진행하여 B2B 시장 공략 중
-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와 ICT 기반 관제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전기 안전 관리 수행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탄소 융합 소재 PCB를 활용한 LED 등기구 제조 기술

- 탄소 나노 융합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이용한 LED 등기구 제조 기술 보유
- 제1 탄소계 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PCB 개발 및 수직 열전도를 향상시킨 제2 탄소계 소재 적용으로 광 효율 21%, 광 성능 8% 향상
- 경량화 및 제품 수명 연장 실현, PCB 소재 재활용을 통해 산업 폐기물의 감소에 기여 가능



시장경쟁력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관급매출의 비중이 큼에 따라, 다수의 제품 품목에 대한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정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과 그린뉴딜, 탄소저감 정책 등의 정부 주요사업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조달청 사업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기술 인증 획득을 통한 제품 개발로 국내시장의 영업 점유율을 확대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에 대한 점유율 확대

-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국가 의무 인증 등을 획득하여 국내 신사업 시장의 점유율 확대 중

I. 기업 현황

LED조명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및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개발/제조/판매 전문기업

동사는 LED조명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및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KS제품인증을 시작으로 우수제품, 혁신제품 및 신제품(NEP) 인증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경쟁력으로 LED조명 국내시장의 영업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장치,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회사의 개요

동사는 전기전자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1월 에이팩스인터내셔널(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619-9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 2001년 5월 현재의 에이팩스인텍(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0년 5월 KS제품인증(표준명: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을 시작으로 우수제품, 혁신제품 및 신제품(NEP) 인증 등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장치,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표 1. 동사 주요 연혁

일자	연혁 내용
1997.11	에이팩스인터내셔널(주) 설립
2001.05	에이팩스인터내셔널(주)에서 에이팩스인텍(주)로 상호변경
2006.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0.05	KS제품 인증(한국표준협회)
2011.11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8.09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2018.10	벤처기업 인증
2018.11	코넥스시장 상장
2020.05	NEP 신제품인증서 획득
2021.12	특허청장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
2021.12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우수발명품 인증
2022.12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IoT, ICT기반 도로조명설비 상시 누전감시 체계 구축
2023.09	태양광발전장치 성능인증서 취득(중소벤처기업부)
2023.11	첨단기술제품 확인서_탄소융합소재 PCB를 이용한 LED등기구(산업통상자원부)
2023.12	표창장 수상 '2023년도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수행공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및 홈페이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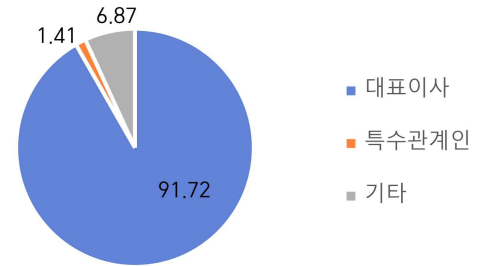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김권진으로 91.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김명숙 외 2인이 1.41%, IBK투자증권이 0.16%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동사 지분구조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김권진	대표이사	3,301,772	91.72
김명숙	특수관계인	40,000	1.11
김권철	특수관계인	7,765	0.22
IBK투자증권	-	5,866	0.16
김권식	특수관계인	3,108	0.08
기타	-	241,489	6.71
합계		3,600,000	100.00

그림 1. 동사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 대표이사

김권진 대표이사는 1990년에 국립금오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아제약(주)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 1997년 11월 동사 설립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는 LED 조명 사업부문에서 실외등(가로등, 투광등, 보안등, 터널등 등)과 실내등(평판조명, 주차장등 및 다운라이트 등)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신재생 사업부문에서는 태양광발전장치와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LED 조명 업계 최초로 생산공정 혁신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생산 공정의 안정화를 꾀했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 사업부를 신설하고 태양광발전장치,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태양광접속함, 모니터링 장치, 데이터수입장치, 에너지절약시스템 등 주요 사업을 다각화하며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 사업부문별 매출실적

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5억 원이며 이 중 LED 조명 사업부문 매출액은 19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5.7%를 차지하며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였다. 신재생 사업부문 중 태양광발전장치 매출액은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8%의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는 2023년 최초로 매출을 실현하며 17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의 LED 조명 보급 및 지원정책에 따라 동사는 기술력 및 인증을 베이스로 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급을 주요 타겟으로 매출을 증진시키고 있다. 2021년 102억 원, 2022년 157억 원, 2023년 174억 원으로 조달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ED 조명 조달실적은 2023년 말 기준 140억 원으로 조달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였다.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 태양광발전사업, 에너지신사업, 에너지절약사업 등 신재생 사업부문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3. 사업부문

사업부문	제품명		비고
LED	실외등	가로등, 투광등, 보안등, 터널등 등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의 등급 기준에 따라 광학 설계가 최적화된 LED 보안등
	실내등	평판조명, 주차장등, 다운라이트 등	실내 천장에 설치하는 고효율 LED 실내등
신재생	태양광	태양광발전장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
	IoT	원격접속장치	전기설비의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 안전 정보를 실시간 원격감시·분석을 통해 감전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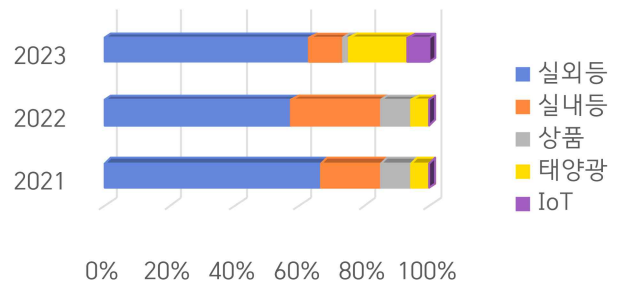
표 4. 사업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사업부문	제품명	2021	2022	2023
LED	실외등	141	122	161
	실내등	39	58	26
	상품	19	20	6
신재생	태양광	12	12	45
	IoT	-	-	17
합 계		211	212	25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그림 2. 제품별 매출비중

(단위: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표 5. 판매경로별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K-IFRS 개별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11,607	56.2	10,262	48.6	15,692	74.0	17,412	68.4	나라장터 우수조달 및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다수의 제품 등록
민수	8,976	43.5	10,868	51.4	5,230	24.7	7,681	30.2	직접 영업을 통한 관급 및 민수 매출
아파트	66	0.3	1	0.0	278	1.3	360	1.4	직접 입찰 참여 및 입찰 사이트를 통한 경쟁 입찰
해외	4	0.0	-	-	6	0.0	-	-	
합계	20,653	100.0	21,131	100.0	21,206	100.0	25,453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p>E</p> <p>환경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환경관리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당사는 환경표지 인증,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를 생산 또는 사무용으로 활용 중이고,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p>S</p> <p>사회책임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안전(보건)담당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비상사태 시나리오 대응' 등 안전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당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충 처리 담당자를 두고, 인권 교육, 성희롱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p>G</p> <p>기업지배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당사는 임직원 모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한 LED 조명 및 스마트 조명시장 성장 기대

현재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백열전구 이외에도,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조립 중심의 조명산업 구조가 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 등과 접목된 스마트 조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 형광램프 2027년까지 LED로 전환

LED 조명시장의 경우 높은 단가 및 기존 백열등의 선보급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다가, 세계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및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및 지원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2010년대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열등 사용 금지 정책, 대대적인 공공 시범사업,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정책 등을 실시 중이다. 세계 주요국은 LED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표준 도입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백열등 사용금지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4년 이후부터, 대만은 2012년 이후, 중국은 2017년 이후 전면적인 사용금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서 저렴하고 경제적인 조명기구로 널리 사용되던 형광램프 역시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나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33년까지 기존 형광램프 1,300만 개 가량이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은 4,925GWh(42만4천TOE),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24만9천tCO₂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 LED 조명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기대

국내외 LED 조명 보급 사업 활성화와 친환경 제품으로 LED 조명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LED 조명산업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LED의 조명 가격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의 백열등 규제 본격화로 조명 업체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교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의 LED 보급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사용 유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23년 전 세계 LED 조명시장은 역성장했지만 교체 수요는 상승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설치된 LED 조명이 2023년부터 수명을 다하면서, 앞으로 교체 수요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별 LED 조명 수요에서 교체 수요 비중은 2025년부터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8년 전체 LED 조명 수요는 160억 개를 넘어서고, 이 가운데 교체 수요는 80% 수준인 130억 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LED 전등의 출하금액은 2018년 1조 757억 원에서 2021년 1조 9억 원으로 연평균 -2.4% 감소하였으며, 동일 추세의 성장률을 적용할 시 2024년에는 1조 51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LED 조명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조명기기 시장에서 대기업 및 브랜드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업체들의 과점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품질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이 국내 다량 유입되고 있어, 국내 LED 조명의 시장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등기구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형광등만 LED 조명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형광램프 대체형 LED 조명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림 3. 국내 LED 조명 시장전망

(단위: 억 원)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23),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 조명 단품 시장에서 스마트 조명시장으로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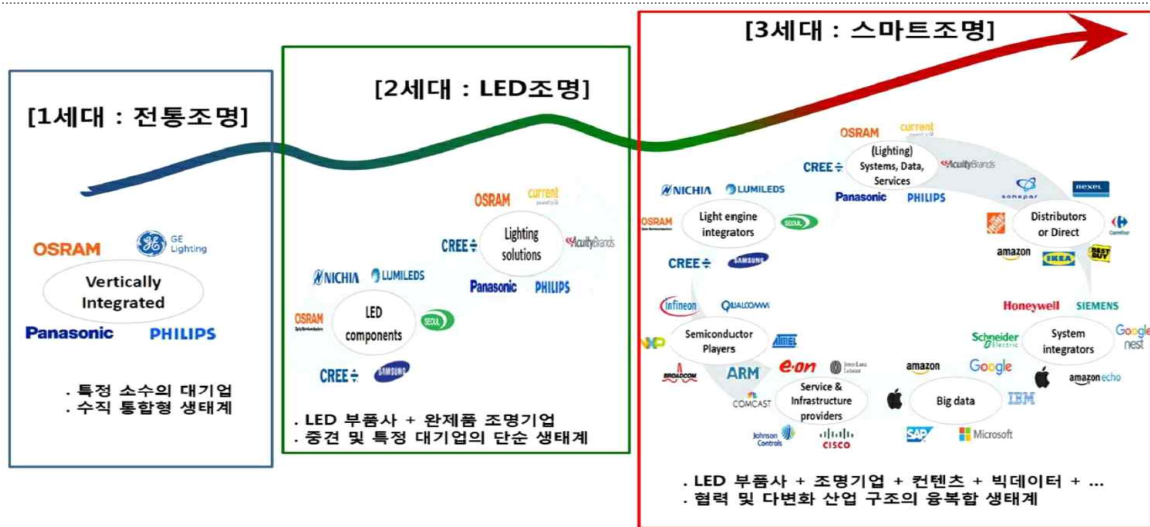
가격 경쟁화된 LED 조명의 국내시장은 조명 단품 시장에서 현재 IoT 기술,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기술, 센싱 정보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인간중심 조명시장으로 진화,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조명이란 조명기와 센서, 유/무선 통신, 운용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되어 요구되는 광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켜 주고, 주변 환경이나 미리 정의된 조건(광속, 색온도 등)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어가 가능한 조명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또는 그룹 제어가 가능하며, 다양한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개별 또는 그룹 조명기기에 대한 On/Off 제어, 광 출력제어(Dimming), 재실여부 감지에 따른 자동 On/Off 제어, 주광 조도에 따른 조명의 자동 밝기 조절, 시간대별 조도 스케줄링 등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이다. 이러한 스마트 조명은 사무실이나 가정 등 다양한 응용처에서 최적의 빛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어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의 조명시장은 대단위로 설치하는 ‘보급’ 중심이었지만, 스마트 조명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생체 리듬 및 설치 환경 등으로 구체화되는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각적

에이펙스인텍(207490)

요소에만 한정되는 조명 기술이 앞으로는 감성 및 기능 구현, 인공지능 등의 비시각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순 조립 중심의 조명산업 구조도 스마트 조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ICT 기반 커넥티드 스마트 조명은 전/후방산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이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단순 조명기구 산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홈/빌딩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하여, 스마트홈/시티 및 제로에너지빌딩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래 조명 시장은 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 등과 접목된 스마트 조명이 이끌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조명의 생태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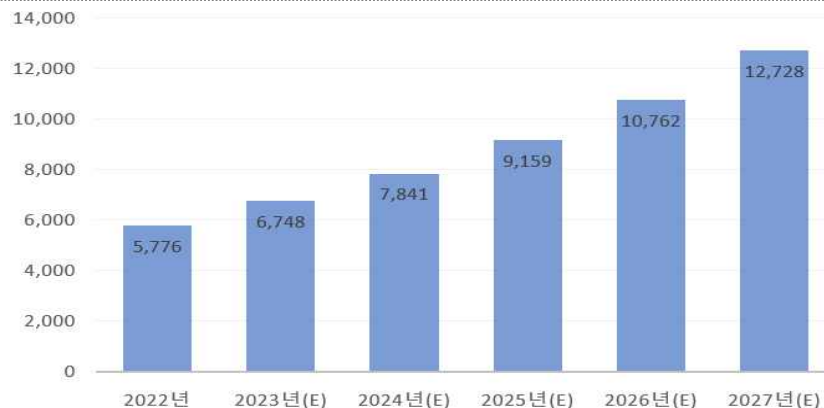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편, TechNavio와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조명 시장은 2022년 5,776억 원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17.1% 성장하여 2027년에는 1조 2,72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LED 보급 확대와 가격 하락, 전 세계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 증대가 스마트 조명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기술의 대중화로 스마트 조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스마트 조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5. 국내 스마트 조명 시장전망

(단위: 억 원)



자료: 'Global Smart Lighting Market', TechNavio(2023), 'Smart Home Hardware Market', Allied Market Research(2023),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 국내 LED 조명 관련 업체 현황

동사의 실내외 LED 조명등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수 조달과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대리점과 직접 영업을 통해 관급매출, 민수매출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매출은 직접 입찰 참여와 전국 아파트 입찰 사이트를 통하여 경쟁 입찰로 진행 중이다.

LED 조명장치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화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 경쟁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이며, 주요 제품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내외 등기구를 제작하고 있다. 실내외 등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1,000여 개의 업체가 존재하나, 상위 20개 업체가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표 6. 국내 LED 조명 관련 주요 기업

기업	주요 제품 및 관련 기술	기본정보(2023.12 기준)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판매 - B2G 부문과 B2B/B2C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 영위 - 탄소융합소재 PCB를 이용한 LED 등기구 기술로 NEP 인증 획득 - 태양광발전장치 우수조달제품 지정, IoT 기반 원격접속 장치 혁신제품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넥스 상장 - 매출액: 254.5억 원 - 영업이익: 1.4억 원
(주)선일일렉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컨버터, 안정기 등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 - 스마트 조명제어 기술로 LED 등기구 고효율 인증 획득 - 주차관제, 선박 조명 시장 등 신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588.1억 원 - 영업이익: 22.2억 원
(주)파인테크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대체형 면조명/LED 형광등, LED 주차등, 백열등/할로겐 대체형 LED 다운라이트 등 고풍력 산업용 조명에서 가정용 조명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 - B2G, B2B 시장에서 쌓아온 인지도를 기반으로 2020년 "파인홈즈"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여 B2C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 상장 - 매출액: 593.8억 원 - 영업이익: 14.5억 원
(주)금경라इट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실내조명과 실외조명 제조, 판매 - 'LED 조명의 수명 연장을 위한 LED 칩 하부 비아홀 기반 양면코팅 인쇄회로기판 제작 기술이 적용된 LED 조명등기구' 기술에 대해 NEP 인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115.3억 원 - 영업이익: 3.5억 원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각 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LED 조명에 대한 신제품 개발 및 지능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

동사는 LED 조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수행하며, 다수의 관련 특허, NEP 인증, 녹색기술 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첨단기술제품 인증 등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주도하는 조명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AI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IoT 등의 전략 제품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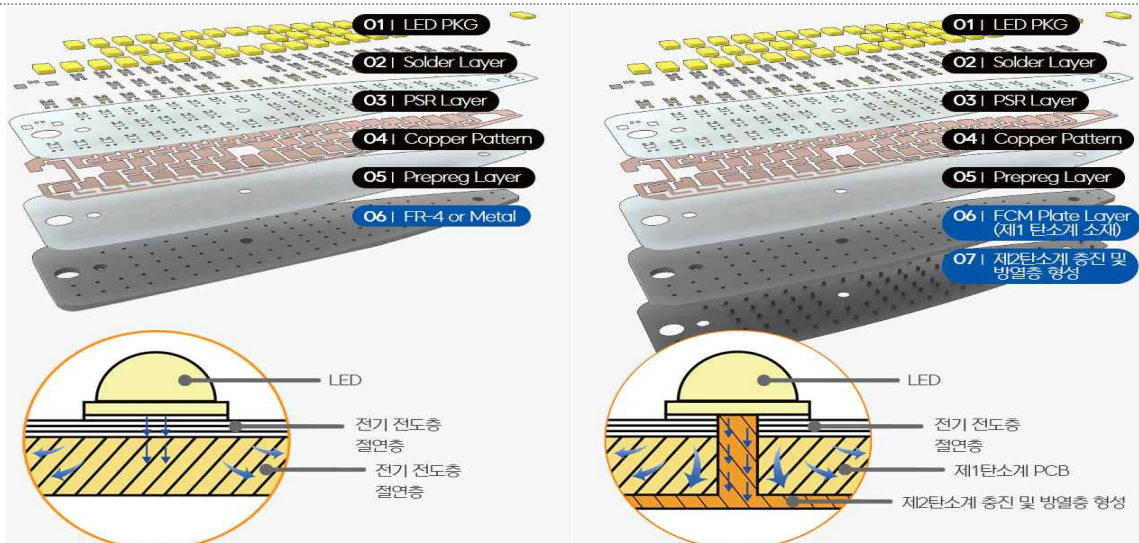
■ 탄소 융합 소재 PCB를 활용한 LED 조명 제조 기술

동사는 다양한 종류의 실내외 LED 조명을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 나노 융합 소재 PCB를 적용한 LED 조명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탄소 나노 융합 소재 적용을 통해 LED 조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PCB 열 방출 문제를 개선한 기술로, 기존 LED 제품에 적용되는 FR4, Metal 소재의 PCB가 각각 0.45W/m·K, 2.0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여 최대 3.77W/m·K의 우수한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방열 성능이 개선된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LED 조명의 광 효율 향상 및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CB에 실장되는 부품들을 냉각하기 위한 다수의 기술이 종래에 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인쇄 회로 기판 전체의 냉각을 도모하는 구성이거나, 특정 부품의 선택적인 냉각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냉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사는 인쇄 회로 기판 자체를 열 방출 특성이 높은 재질로 형성함으로써, 인쇄 회로 기판 전체의 냉각이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사가 개발한 PCB는 제1 탄소계 소재를 이용한 플레이트, 제1 탄소계 소재보다 열전도성이 우수한 제2 탄소계 재료로 이루어진 전열로드 및 방열층의 적층 구조를 통해 수직 열전도율을 향상시켜 제품의 광 효율을 21%, 광 성능을 8% 향상시킨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방열판 무게가 절감되어 제품의 경량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폐기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6. 기존 PCB 구조(좌), 동사의 FCM PCB 구조(우)



자료: 동사 홈페이지

■ 공기청정, 생체리듬, IoT 기능이 적용된 휴먼센트릭 스마트 웰빙조명

동사는 LED 조명에 대해 지속적인 R&D를 수행하며 휴먼센트릭 스마트 웰빙조명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이는 공기 청정과 생체리듬, 스마트(IoT) 기능이 적용된 제품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집중과 휴식의 질을 높일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사의 웰빙조명은 기존 UV 방식이 아닌 TiO_2 (이산화티타늄) 무광 촉매와 삼성의 HCL(Human Centric Lighting) LED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HCL은 시각적 기능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활동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사람의 생활패턴에 맞춰 조명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동사 제품에 적용된 삼성의 HCL LED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사의 TiO_2 무광 촉매 기술은 기존의 TiO_2 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에서 반응하는 오존 발생을 차단한다. 또한, 천연미네랄 광물인 일라이트가 코팅 적용되어 원적외선 방사, 유해균 항균·탈취 작용, 음이온 발생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로부터 부유미생물 저감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

아울러, 동사의 스마트 웰빙조명은 자연대류를 이용해 무소음·무진동 공간 살균을 가능하게 하고 멜라토닌을 조절하여 공간 쾌적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집중력 강화 및 휴식, 숙면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oT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음성인식 등 다양한 방법과 기능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표 7. 스마트 웰빙조명 점등 3시간 후 공기 중 부유미생물 저감 시험 결과

시험항목 (부유미생물 저감 시험)	시험결과		시험환경	감소율
	가동 전 농도 (CFU/m ³)	가동 후 농도 (CFU/m ³)		
대장균	1.6×10^4	5.0×10^3	(23.0 ± 0.3)°C (50.5 ± 1.0)% R.H	68.7%
황색포도상구균	1.0×10^4	4.7×10^3	(23.0 ± 2.0)°C (50.0 ± 5.0)% R.H	53.0%
폐렴균	1.0×10^4	3.3×10^3	(23.0 ± 0.2)°C (50.5 ± 1.0)% R.H	67.0%
슈퍼 박테리아(MRSA)	3.2×10^4	1.2×10^4	(23.0 ± 1.0)°C (50.0 ± 3.0)% R.H	62.5%

자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 지능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동사는 LED 조명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장치, 태양광발전 접속함,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태양광발전 데이터수집 장치, 전기안전 IoT 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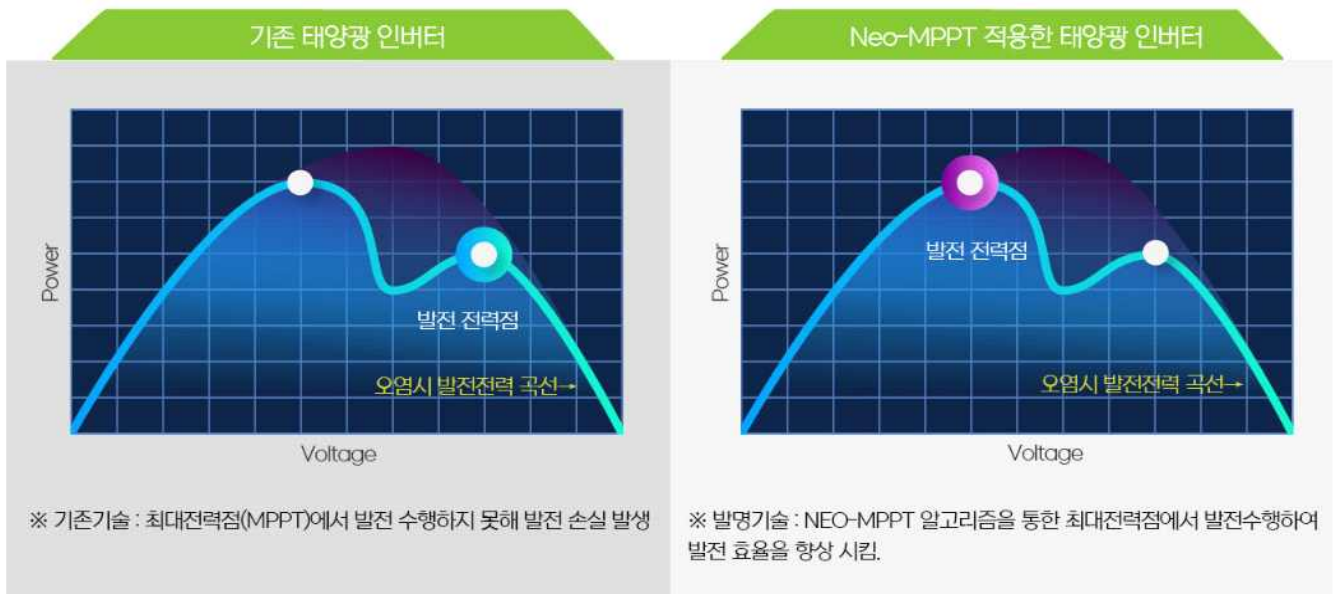
동사가 개발한 CCTV 태양광 가로등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축전지에 저장한 후 야간에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CCTV 기능을 탑재해 방범 보안 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립화를 구현해 전원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도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장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 감시 및 제어를 통한 안전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접속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림과 동시에

분전함의 차단기를 차단하여 계통망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일사량에 따른 달라지는 발전전력에 대한 기계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 여부를 진단 및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수집 장치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눈과 낙엽에 의한 태양광 패널의 오염이나 음영, 부분적인 불량 등이 발생하여 태양광 발전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라인을 자동으로 찾아주며, 알고리즘을 이용해 예측 발전량을 산출하고 발전량이 발전 예측 구간을 벗어날 경우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 장치의 인버터는 자체 개발한 최대전력점 추적 알고리즘(NEO-MPPT)에 의해 전압-전력 곡선에 다수의 변곡점이 존재할 경우 현재 전압 부근이 아닌 넓은 전압 범위에서 최대전력점을 기준으로 제어된다. 이를 통해 기존 태양광 인버터에 비해 발전효율이 82.6% 향상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치 않아 제조원가 절감 및 설치/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동사의 태양광 가로등 및 태양광 발전장치는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그림 7. 기존 태양광 인버터와 동사의 태양광 인버터 비교



자료: 동사 홈페이지

LED 조명 신제품 출시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동사는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실내조명과 센서제품, 경관조명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연구인력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검사장비를 완비해 연구개발하고 있고, 첨단검사장비를 생산현장에서 활용하여 각 공정 별 품질관리 및 완제품의 품질과 성능 검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 및 성능시험 데이터를 관리하여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공정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852백만 원(전체매출 대비 4.0%), 2022년 1,150백만 원(전체매출 대비 5.4%), 2023년 885백만 원(전체매출 대비 3.5%)의 경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허청의 KIPRIS 검색 결과(2024.04)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등록 70건, 디자인등록 16건, 상표등록 6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동사 최근 등록특허 현황

특허 내용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적용 제품
공기순환 및 정화 조명기구	10-2357755	2022.01.26	LED 실내등
조명장치의 낙하 및 이탈 방지용 각도조절장치	10-2392116	2022.04.25	LED 실내등
LED 조명장치용 고출력 방열모듈	10-2394602	2022.05.02	LED 실내등
우수한 방열성능으로 LED 수명을 향상시킨 바닥 신호 등용 내함조립체 및 그 제조방법	10-2412881	2022.06.21	바닥 신호등
경량 내열성 실외용 난연소재	10-2423133	2022.07.15	LED 투광등
조명기구의 표면 코팅 방법	10-2511263	2023.03.14	LED 조명
조명기구용 코팅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상기 코팅 조성물을 이용한 코팅층의 형성방법	10-2513392	2023.03.20	LED 조명
조명기구용 코팅 조성물	10-2513395	2023.03.20	LED 조명
낙하 및 이탈방지용 방진 방수형 터널 등기구	10-2519509	2023.04.04	터널 등기구
방열형 인쇄 회로 기판	10-2526655	2023.04.24	LED 조명
터널 등기구용 눈부심 방지 렌즈 형상 구조체	10-2584716	2023.09.26	터널 등기구
터널 등기구용 볼록 렌즈 형상 구조체	10-2592126	2023.10.17	터널 등기구

자료: 특허청(KIPRIS),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IV. 재무분석

태양광발전장치 매출 증가 및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매출 실현으로 매출액 큰 폭 증가

LED 조명 사업부문이 동사의 전체 매출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태양광발전장치 매출 확대 및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매출 실현으로 2023년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 사업부문의 매출액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신재생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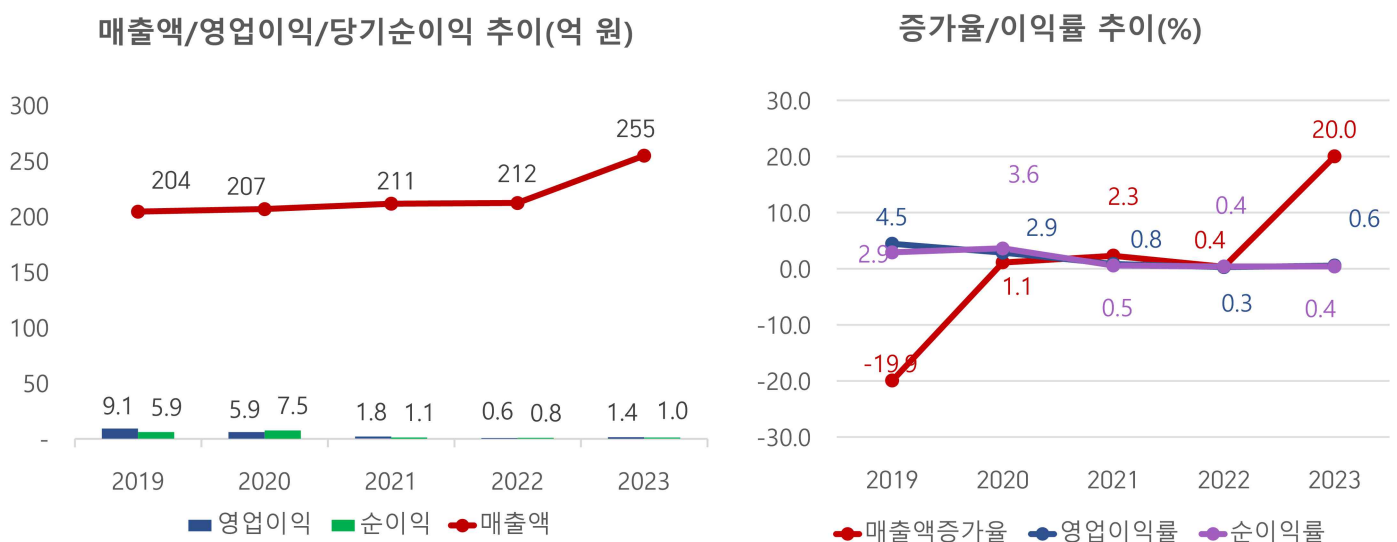
동사는 2021년 211억 원, 2022년 212억 원, 2023년 255억 원으로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대리점 발굴로 판매 다각화,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따른 제품 유통망 확대 등 민수시장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민수시장 매출은 2022년 52억 원에서 2023년 77억 원으로 46.9%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매출과 함께 매출실적을 견인하였다. 태양광발전장치,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힘입어 신재생 사업부문 매출액은 6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32.5% 대폭 상승하였다.

■ 영업이익 및 순이익 흑자기조 유지

동사는 2021년 1.8억 원, 2022년 0.6억 원, 2023년 1.4억 원 등 매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2021년 0.8%, 2022년 0.3%, 2023년 0.6%로 동종 산업평균(3.7%)을 하회하고 있다. 동사의 LED 조명 분야의 공장가동률은 2022년 60.0%에서 2023년 84.0%로 증가하여 생산실적이 향상되었으나, 주요 원재료인 기구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132.1%, 순이익 27.7% 각각 증가하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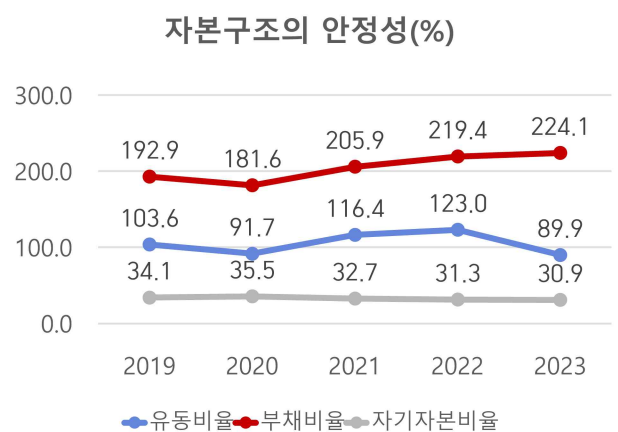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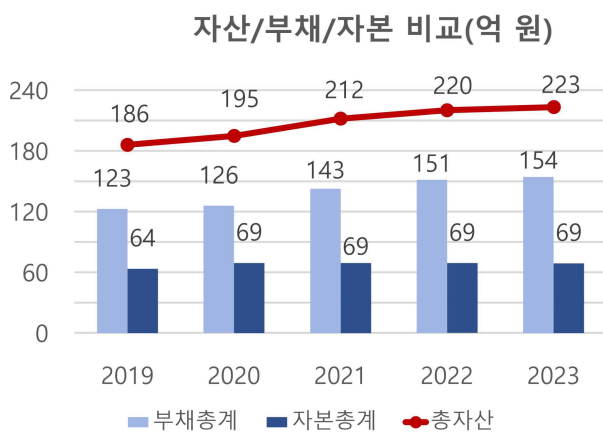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재무안정성 다소 약화

2023년 결산 기준 동사의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반면,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부담 가중으로 유동부채 금액은 전년 대비 37.4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유동비율은 2022년 123.0%에서 2023년 89.9%로 33.1% 하락하여 유동성이 약화되었다. 동사의 동종 산업평균 기준인 부채비율 106.3%, 자기자본비율 48.5%, 당좌비율 124.8%과 비교하여 동사의 부채비율은 224.1%, 자기자본비율 30.9%, 당좌비율 64.6%로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9.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04	207	211	212	255
매출액증가율(%)	-19.9	1.1	2.3	0.4	20.0
영업이익	9.1	5.9	1.8	0.6	1.4
영업이익률(%)	4.5	2.9	0.8	0.3	0.6
순이익	5.9	7.5	1.1	0.8	1.0
순이익률(%)	2.9	3.6	0.5	0.4	0.4
부채총계	123	126	143	151	154
자본총계	64	69	69	69	69
총자산	186	195	212	220	223
유동비율(%)	103.6	91.7	116.4	123.0	89.9
부채비율(%)	192.9	181.6	205.9	219.4	224.1
자기자본비율(%)	34.1	35.5	32.7	31.3	30.9
영업활동현금흐름	27	22	-33	41	29
투자활동현금흐름	-6	-12	11	-23	-27
재무활동현금흐름	-10	-1	14	6	-13
기말의현금	19	29	22	4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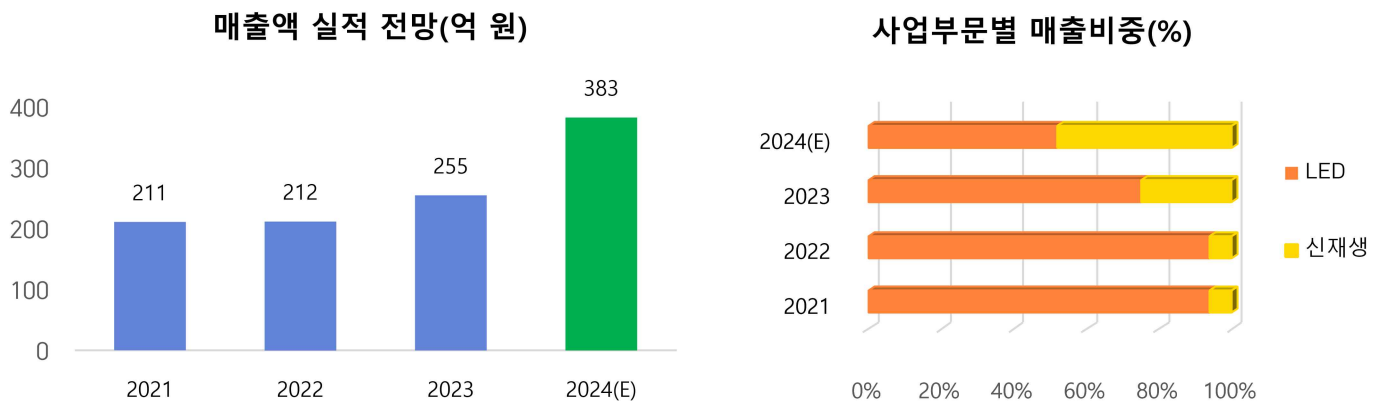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LED 조명 사업부문이 동사의 전체 매출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장치 매출 확대 및 IoT기반 원격접속장치 매출 실현으로 신재생 사업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은 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132.1% 상승한 1.4억 원, 순이익은 27.7% 상승한 1.0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정부정책(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그린뉴딜, 탄소저감 등)의 주요사업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가점이 되는 품질 인증(ISO 9001, KS 인증 등),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등록 등) 및 제품 인증(NEP, 우수조달지정, 녹색기술인증 등) 등을 취득하며 영업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조명 판매업체 등의 대리점 발굴로 제품 유통망 확대, 중장기적으로 온라인대리점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중동, 태국, 유럽 등) 등 매출처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 2024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전기 공급부터 공사까지 총괄하는 수주계약 확보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향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의 매출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10] 동사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사업부문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211	212	255	383
LED	199	200	193	200
신재생	12	12	62	18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동사 제공,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전기안전 원격장치 점유율 확대 및 핵심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플랫폼 확장을 통한 매출 증대 기여

전기안전관리 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주도형 안전관리체계에서 민간 국민 참여형 전기안전플랫폼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는 IoT 기반 원격접속장치에 대한 신사업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핵심기술 내재화와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IoT 기반 누전감시를 위한 원격접속장치 점유율 확대

동사는 전기안전 IoT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IoT 기술을 융합한 네트워크 무선 통신망을 통해 누전, 과부하, 단락사고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달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완료하였다. 동사의 IoT 제품은 기존 상시 대면 점검 체계에서 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실시간 전기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가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IoT 전력보호감시장치를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내년까지 아파트 30만 호와 도로조명시설 221만 호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IoT 전력보호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 및 노후시설로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AMI 보급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안전플랫폼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당사는 미래 전략 사업인 IoT 사업의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11. 동사 IoT 기반 누전감시를 위한 원격접속장치의 특징점

핵심 특허 적용 기술 · [특허제10-2124554호, 실시간 원격 3상 전기 설비의 활성상태 누전감시 장치 및 방법] 기술 적용



자료: 동사 홈페이지

■ 핵심기술 내재화 및 신사업 플랫폼 확장

동사는 2024년에 혁신제품인 탄소복합소재 몸체와 스택편이 결합된 고출력 경량 LED 스포츠 투광등기구와 휴먼센트릭 스마트 웰빙조명, IoT 기반 상시 누전감시 체계 등을 주력 제품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T 장치 및 웰빙조명에 탄소 융합 소재 PCB를 적용, 오피스형 웰빙조명 개발, UCAI(User 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기능 탑재 웰빙조명 개발 등 핵심기술을 내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향상 및 신규개발에 몰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웰빙조명에 대한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구축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여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이펙스인텍(2074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의견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4.04.1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이펙스인텍	O	O	X

2024년 03월 04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2024년 02월 16일 기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2024년 02월 15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